

구글 AI챗봇 ‘바드’에 尹정부 정책에 대해 물으니

# “탈원전 정책 폐기… 일부서 찬사 vs 환경단체 반발 불러”

한국어 등 40개언어 지원 AI챗봇 최신 대규모 언어모델 팜2 탑재

한국 가장 유명한 뮤지션 물음엔 “재능있는 뮤지션들 많지만 자주 언급되는 뮤지션은 BTS” 챗GPT 답변보다 자연스러워

Q: 윤 대통령 출범 이후 개선된 정책은?

바드: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 주목됩니다.

바드의 답변이다.

구글이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AI챗봇 ‘바드’를 소개했다. 바드는 한국어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 180개 국가에서 전면 개방한다.

구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마운틴뷰 캠퍼스에서 개최한 연례 개발자 대회(I/O)에서 ‘바드’ 서비스를 180개 국가에서 전면 개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순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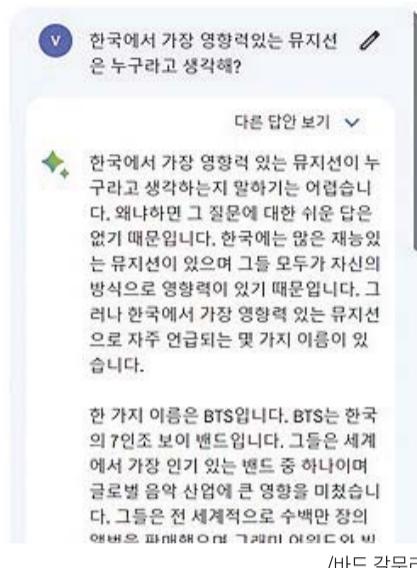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가 10일(현지시간)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I/O) 연설하는 모습 /뉴시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 회의(I/O)’에서 “오늘부터 바드 이용을 위한 대기자 명단 운영을 종료한다”며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 그간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출시하던 구글이 이번 바드에는 한국어, 일본어를 추가하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섰다. 순차적으로 40개 언어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 AI의 챗GPT가 전 세계 AI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은 더 강력해진 바드를 필두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것.

바드에는 구글의 최신 대규모 언어모델(LLM) 팜2(PaLM 2)가 탑재됐다. 팜2는 지난해 4월 선보인 팜의 업그레이



드 버전이다.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으며 5000억 개의 파라미터(매 개변수)를 바탕으로 이메일 작성,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새로운 제안 등 창의적인 작업까지 가능하다. 또 스스로 20개가 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할 수 있으며 수학, 과학적인 용어로도 작업이 가능해졌다. 이같은 기술력을 토대로 AI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선도하겠다는 전망이다.

구글은 이같은 바드를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답변을 위해 추후 지속적으로 검색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현재의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아직 한계가 있는 초기 기술”이라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 챗GPT vs 바드 체험해보니

챗GPT와 바드에 같은 질문을 해봤다.

Q: 한국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개선된 정책은?

챗 GPT: 윤 대통령은 점심 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행보, 시민에게 개방한 집무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에서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바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내걸고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 정책에 실망한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결정은 환경 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드의 답변은 오픈 AI의 ‘챗GPT’가 다소 모호하게 설명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바드는 윤정부의 출범 날짜와 사회적인 현 상황을 빗대어 다양한 시선

으로 답변한 점이 눈에 띈다. 또 다른 답변에서도 차이가 났다.

Q: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션은 누구야?

챗GPT: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션은 방탄소년단입니다.

바드: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뮤지션이 누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재능 있는 뮤지션이 있으며 그들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뮤지션으로 자주 언급되는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답변에는 정확한 차이가 있었다. AI 언어 모델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질문에 맞는 객관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챗GPT는 다소 객관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라는 언어적 특성으로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챗GPT의 무료 버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바드의 언어구사 표현 능력은 초기 시범 운영치고 훌륭했다.

구글이 바드에 한국어를 추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업계는 한국이 AI에 특화된 나라고 앞으로 잠재력이 크다는 평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중견기업 300곳에 4조 대출 신사업 진출 등 지원금 마련

산업부 ‘라이징리더스 300’ 대상 모집 연간 60개사 내외로 총 5년간 시행

중견기업 300개사에 5년간 4조원을 대출 지원하는 전용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은행은 12일 중견기업 전용 금융 프로그램 ‘라이징리더스(Rising Leaders)300’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라이징 리더스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확장 등 기업 성장사다리 확보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해외진출, 에너지 절약(ESG), 신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DX) 등 각 분야에서 성장잠재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나 후보중견기업이다.

올해 상반기 30개사 모집을 시작으로 연간 60개사 내외, 5년간 총 300개사에 4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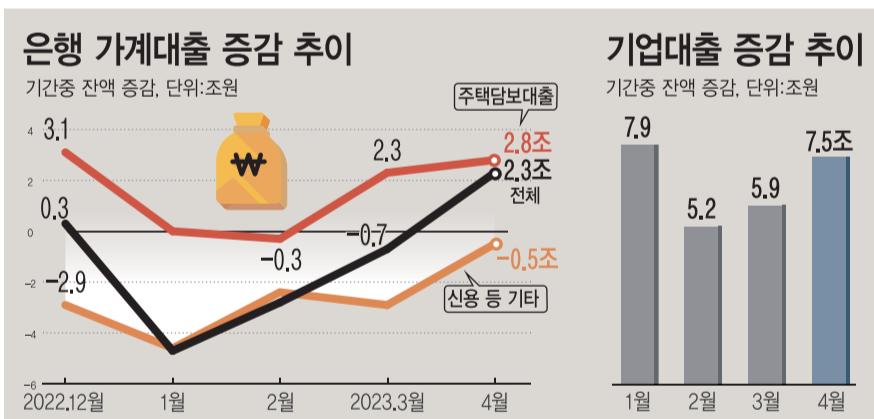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억 원 대출 ▲1.0%포인트 금리우대 ▲회사채 발행 지원 ▲글로벌 데스크 운영 등을 지원하고,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전문기관별 ▲중견기업 수출 바우처 연계 ▲에너지 혁신 스타트업

매칭 ▲중견기업 전용 연구인력 사업 연계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기업 성장 이어달리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견기업에 성장에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을 통해 튼튼한 기업 성장사다리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금융지원을 포함해 규제 혁신, 기술, 인력 지원 등 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중견기업은 지원분야별 ‘해외진출’(KOTRA), ‘ESG 및 에너지 절약’(중견련), ‘신기술 개발’(KIAT), ‘디지털 전환’(지능화협회) 등 전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각 전문기관은 신청기업의 투자계획과 성장잠재력을 종합 평가해 1.5배수 이내 지원후보를 우리은행에 추천하고, 이후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12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이나 우리은행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주택거래 상승… 가계부채 2.4조 ↑

한은,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 1052.3조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2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부터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3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윤옥자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통상 주택거래가 발생한 후에 가계대출 수요까지 2~3달이 발생한다”며 “1월 대비 2월에 늘어난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며 가계대출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9000호에서

2월 3만1000호, 3월 3만5000호로 증가했다. 전세거래량도 1월 4만8000호에서 2월 6만호로 늘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03조6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은 같은 기간 1조7000억원 감소해 전달(-2조3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기타대출은 감소세가 둔화됐다. 가계 기타대출 잔액은 247조3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5000억원 줄었다. 2월과 3월 각각 2조4000억원, 3조원 감소폭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약 2조원 이상 감소폭이 축소됐다.

윤 차장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주식 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며 기타대출 감소폭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전기차 주도권 사활’ 서 계속

## 울산·화성에 전기차 공장 글로벌 주도권 잡기 올인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전용 공장은 1996년 아산공장 가동 이후 29년 만에 들어서는 현대차의 국내 신공장이다.

약 2조원이 신규 투자되며, 7만1000평의 건축 면적으로 올해 4분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전기차 전용 신공장은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 자동화, 친환경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세대 미래차를 양산한다.

또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기아화성 오토랜드에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돌입했다. 이 곳은 약 3만평의 부지에 1조원 가량이 투입된다. 2025년 하반기 양산에 돌입해 연간 최대 15만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유연생산, 저탄소, 지능화, 인간 친화를 추구하는 혁신 공장으로 국내 미래차 생산의 대표적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오토랜드 광명도 상반기 중 내연기관 생산 시설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정의선 회장이 “내연기관차는 우리가 패스트 팔로아였지만 전기차 시대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기차 생산 거점 확대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